

사생활 무단으로 촬영한 사진은 본지를 통해 고발합니다.

임빙 디아너스타 컨트리 클럽

- 광주·동광명IC 구간 광복 동원드 산동 (명절특별행) 10명 선수권 대회 개최
- 우천시 9월 이후 출발요청형선제 실시
- 예약: www.hpdyashy.co.kr 0801-320-7700

한국 종합 13위 '잘 싸웠다'

한국이 제13회 베이징장애인올림픽에서 종합 13위를 확정지었다. 한국은 폐막일인 17일 오전 천안문(天安門) 광장을 출발해 베이징 시내를 돈 뒤 주경기장인 국가체육장(國家體育場)으로 들어오는 42.195km 코스에서 진행된 남자 마라톤 T54(휠체어를 타고 하는 경기) 종목에 끝으로 메달 결정 종목을 모두 마무리지었다.



장애인올림픽 어제 폐막
금 10·은 8·동 13개 획득
개최국 중국 우승...2연패

이어 종합순위 13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애초 기대했던 금메달 13개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목표도 삼았던 종합성적 14위보다 한 단계 높은 순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사격에서 금메달 4개가 나와 이번 대회 최고 효자 종목 노릇을 했고 양궁과 보치아에서는 금메달을 각각 2개씩 수확했으며 육상과 탁구도 한국선수단에 금메달 1개씩을 안겼다. 사격의 이지석(34)과 한국 선수단 중 가장 나이가 어린 보치아의 박건우(18)는 각각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광주·전남출신 선수 8명(광주 6명·전남 2명)은 4개 종목(탁구, 사격, 역도, 양궁)에 참가해 금1, 은2, 동1개의 수확을 거두며 대한민국이 당초 목표했던 순위달성에 기여했다.

이 종목에 출전한 김윤오는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한 호주의 커트 페트리보다 15분27초가 느린 1시간38분44초의 기록으로 31위를 차지했다. 5인제 시각장애인 축구팀은 올림픽그린 하키스타디움에서 영국과 가진 5~6위 순위 결정전에서 1-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0-1로 패해 6개팀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로써 한국은 전남 남자탁구 단체 결승전에서 중국을 물리치고 1위를 차지한 것을 포함해 금메달 10개, 은메달 8개, 동메달 13개로 프랑스(금 11개, 은 21개, 동 19개)에



10월4일부터 이틀간 서울과 광주를 찾아 시범 주행을 하게 된 BMW 자우버 팀의 시범 주행 모습. /연합뉴스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인 포뮬러 원(F1)에 출전하는 경주용 자동차가 서울과 광주 시내에서 시범 주행을 갖는다. F1 한국 그랑프리 운영법인인 KAVO(Korea Auto Valley Operation)와 2010년부터 한국 F1 개최지로 선정된 전라남도에서 F1 한국 유치 확정 2주년 기념 행사 '포뮬러 원 시티 쇼크'를 10월4일부터 이틀간 치른다고 17일 발표했다. 4일 오후 1시에는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앞 도로에서 F1 차량이 시범 주행을 갖고 5일 같은 시간에는 장소를 광주 금남로 일대로 옮겨 시범 주행을 펼칠 예정이다. 이 행사에는 KAVO의 초청으로 2008 시즌 F1 그랑프리에 참가하고 있는 BMW 자우버 팀의 주전 드라이버 닉 하이드펠트, 실제 경주차와 같은 디자인의 차량이 팬들 앞에 선을 보인다.

F1 시범 주행
내달 5일 오후 1시
광주 금남로 일대서

이번에 한국을 찾는 차량은 최대 출력 750마력, 최고 시속 355km에 달하며 서울 행사에서는 안전 확보를 위해 500m 길이의 통제된 구간에서 진행돼 주행 속도를 마음껏 뽐내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짧은 거리에서 시속 200km까지 급가속하는 순발력을 보여주는 등 다양한 부대 공연과 함께 팬들에게 볼 거리를 선사한다. 정영조 KAVO 대표는 "F1 시티 쇼크는 세계적인 모터스포츠의 높은 기술 수준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행사를 통해 2010년부터 한국에서 열리는 F1 그랑프리 위상을 널리 알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F1 한국 그랑프리는 2010년부터 7년간 영암에 건립 중인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매년 한 차례씩 열릴 예정이다.

'가을잔치' 주인공 윤곽

SK·롯데·두산·삼성 4강 확실히

'2008 플레이오프 고지여 오른 롯데와 8부 능선을 넘는 삼성' 롯데 자이언츠가 지난 16일 대전구장에서 한화 이글스를 9-6으로 누르고 8년만에 플레이오프 진출을 자축하는 삼페인을 터트렸다. 반면 힘겹게 4위 삼성을 쫓고 있는 한화는 에이스 류현진을 내리고 승수를 챙기지 못하며 4강길이 더욱 멀어지게 됐다. 프로야구는 16일까지 504경기중 458경기를 끝마쳐 전체 일정의 90.8%를 소화했다. 4강 윤곽도 거의 완성됐다. 2위·4위 싸움이 한창이긴 하지만 이번이 없는 한 SK, 롯데, 두산, 삼성이 '가을잔치'의 주인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4강 지도의 변수는 삼성과 한화가 쥐고 있지만 삼성이 더 무게가 실린다. 16일까지 삼성이 9경기를 남겨 두었지만 한화는 8게임 중 가장 많은 경기를 소화해내 앞으로 5경기밖에 남지 않았다. 한화가 남은 경기에서 전승을 거둔다고 해도 삼성의 남은 일정을 지켜봐야 하는 입장이다. 한화의 전승을 가장할 경우 4위를 위한 삼성의 마지막 선수는 5승 4패다. 두 팀이 65승 61패로 동률을 이루더라도 상대 전적에서 삼성이 11승7패로 유리하기 때문에 한화가 자동으로 5위로 밀리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잘 치고, 잘 던지고, 잘 찬 한국 스타들 '신바람'



“전설이 시작된다”

日 언론들 '이승엽 3연타석 홈런' 극찬

이승엽(32·요미우리 자이언츠·사진)이 일본프로야구 진출 후 처음으로 3연타석 홈런을 뽐내자 일본 언론은 그의 소식을 1면 톱으로 올리고 대서특필했다. 하라 다쓰노리 감독도 "3회 2사 1, 2루, 4회 2사 1루, 6회 2사 1루에서 터진 세 방의 홈런 모두 가치 있는 홈런이었다"며 이승엽의 맹활약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스포츠닛폰은 이날 요미우리 홈런 4방 등 16안타로 시즌 최다인 14점을 뽑을 수 있던 건 아시아 대표 이승엽 덕분이라고 평했다. 이어 이승엽이 지난해 10월 왼손 엄지

과 3개임차-전설이 시작된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이승엽이 전날 요코하마전에서 홈런을 때린 뒤 웃는 것도 잊고 베이스를 들었다. 이승엽의 독무대였다'고 극찬했다. 산케이 스포츠는 '요미우리 타선은 마치 백수의 왕 사자와 같았고 이승엽은 마치 탁구공을 때리 듯 가볍게 홈런을 쏘아 올렸다. 베이징올림픽 금메달로 세계 1위 4번 타자라는 칭호를 얻은 이승엽이 올림픽 때처럼 두려움을 다시 불러 일으켰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이승엽이 2군에서 컨디션을 조절하면서 다이얼에 돌입, 체지방을 줄이고 근육을 키워 스윙 스피드를 되찾았다고 평해 눈길을 끌었다.



“구단내 완벽한 선수”

美 신문 '추신수 맹타' 집중 조명

미국프로야구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에서 불박이 주전에 도전 중인 외야수 추신수(26·사진)가 최근 맹활약으로 현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오하이오주에서 발행되는 일간 '엑스프레스저널'은 17일 인터넷판에서 추신수를 인디언스 구단 내에서 '완벽한 선수'로 칭찬하고 장문의 기사를 실었다. 이 신문은 스피드, 강한 어깨, 물살 뜰 수 있는 수비, 타격의 정확성과 장타력을 모두 갖춘 '파워볼 플레이어'로 손색이 없는 추신수에 대해 클리블랜드 구단이 관심을 쏟으면 좋을 수록 그의 기량에

더 많은 존경을 보낼 수밖에 없다고 평했다. 추신수는 전날까지 최근 치른 17경기에서 타율 0.431을 때리고 홈런 4방을 14타점을 올리며 주가를 높이고 있다. 팔꿈치 수술 후 재활 탓에 시즌 출발이 늦었지만 추신수는 불과 273타수만 들어서고도 시즌 타율 0.300에 홈런 10개, 49타점을 거두면서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이 신문은 클리블랜드 구단은 추신수를 내년에 불박이 주전으로 기용할지, 상대가 왼손 투수를 내면 벤치를 지키는

'플래툰시스템'으로 기용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으나 올해 좌투수를 상대로 타율 0.295를 때리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좌투수에 대한 약점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한편 추신수는 17일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프로그레시브필드에서 벌어진 미네소타 트윈스와 홈경기에서 8-7로 앞선 7회 2사 1,3루에서 대타 출장했더니 2루 땅볼에 그쳤고 시즌 타율은 0.302로 약간 떨어졌다. 클리블랜드는 연장 11회말 터진 비터 마르티네스의 끝내기 3점포에 힘입어 12-9로 이겼다.



6경기 연속 무실점

박찬호 피츠버그전 호투...평균자책 2.85

박찬호(35·LA 다저스·사진)가 무실점 행진을 6경기로 늘렸다. 박찬호는 17일(한국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PNC 파크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방문 경기에 구원투수로 등판, 1이닝 동안 안타 1개를 맞았으나 무실점으로 막았다.

6경기 동안 한점도 내주지 않은 박찬호는 평균자책점을 2.85(종전 2.88)로 낮췄다. 박찬호는 6-1로 앞선 8회말 선발 투수 데리 로에 이어 마운드에 올랐다. 지난 14일 플로리다도전 이후 사흘 만에 등판한 박찬호는 첫 타자 루이스 크루스를 2루수 뜬공으로 잡아내고 대타 제이슨 마이

클스를 이날 가장 빠른 시속 151km짜리 공으로 삼진 처리했다. 박찬호는 나이제르 모건에게 2루타를 맞았으나 프레디 산체스를 초구에 2루수 파울 플라이로 잡고 임무를 마쳤다. 9개를 던져 8개를 스트라이크로 꽂는 등 제구력은 안정적이었다. 다저스는 6-2로 이겼다.



‘태권도 한국 알리기’

박주영 도복 입고 구단 홈피 인터뷰

프랑스 프로축구 AS모나코로 이적해 데뷔전에서 득점을 폭발시킨 박주영(23·사진)이 태권도로 한국 알리기에 나섰다. 박주영은 17일(이하 한국시간) 구단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동영상 인터뷰에서 태권도복을 입고 등장했다. 상의 뒤면에 '모나코'라고 쓰인 하얀색 태권도복을 입은 박주영은 '불주르'라며 프랑스어로 인사를 건넨 뒤 인터뷰를 시작했다. 박주영은 "축구를 하기 전까지 태권도를 좋아해서 친구들과 계속했다. 축구

가 좋아지면서 (축구를) 그냥 했다"며 "태권도 선수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배웠는지보다 어렸을 때 친구들과 즐거워하는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태권도" 대화를 나간 것이 아니고 어렸지만 정신적인 부분에서 태권도를 했던 것이 운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주영은 또 "검은 띠, 즉 3단 이상이 되면 거의 다 배웠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배울 것이 더 많이 때문에 파란 띠나 빨간 띠가 더 어울린다고 할 수 있다"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KBS N스포츠 중계권 확보 프랑스 프로축구 데뷔전에서 1골1도움을 올린 박주영의 활약을 이제는 안방에서 TV로 지켜볼 수 있게 됐다. 스포츠전문채널인 KBS N스포츠는 "2008-2009 시즌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 1의 국내 독점 중계권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KBS N스포츠는 오는 22일 오전 4시(한국시간) 열린 AS모나코의 마르세유 원정경기를 시작으로 박주영이 출전하는 경기를 우선 생중계할 예정이다.